



# 손흥민 헤더 시도 우루과이전 승리 기대감 크다

벤투호가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향한 대담한 도전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4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우루과이는 벤투호에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우루과이에 1승 1무 6패로 열세에 놓여 있다.

월드컵에서는 두 차례 만났는데 한국이 전패했다.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에서 0-1로 졌고,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는 16강에서 격돌해 1-2로 무릎 꿇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이 28위, 우루과이가 14위다.

양 팀 최종명단에 오른 선수 면면을 놓고 보면 전력 차는 순위 격차보다 커 보인다.

우루과이에는 유럽 빅리그를 누볐거나 현재 누비고 있는 특급 공격수가 즐비하다.

2010년 남아공 대회 한국과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폭발한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가 아직 건재하다.

수아레스는 리버풀(잉글랜드), FC바르셀로나

## 벤투호,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향한 도전 우루과이, 수아레스·발베르데·누네스 등 출전 '4강 후보' 손흥민 빠르게 컨디션 끌어올려 ... 김민재 수비도 '든든'

(스페인) 등 빅클럽에서 뛰며 프로 통산 746경기에 출전해 무려 460골을 양산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지금은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서 8골을 넣는 등 골감각은 여전히 있다는 평가다.

수아레스는 A매치에 134경기에서 68골이나 넣었다. 월드컵에는 3차례 출전해 총 7골을 기록 중이다.

수아레스와 1987년생 동갑내기 같은 살도 출신으로 그의 '영혼의 콤비'로 불리며, A매치 133경기 58골을 기록 중인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도 무서운 골잡이다.

이들이 어느덧 35세나 돼 우루과이 공격진이 노쇠했다는 우려는 다르던 누네스(리버풀)가 불식한다.

지난 시즌 벤투호에서 공식전 34골을 퍼부어 차세대 특급 골잡이로 떠오른 누네스는 올 시즌 리버풀에서 좌충우돌 적응하며 5골을 기록했다.

다만 누네스는 카타르에서 진행된 전지 훈련 도중 발목에 통증을 느껴 1차전 출전 전망이 불투명하다.

벤투호가 경계해야 할 선수가 공격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주전을 꿰찬 천재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 베테랑 센터백 디에고 고딘(벨레스 사르스필드) 등 전 포지션에 걸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우루과이는 사실상의 '4강 후보'로 꼽힌다.

한국으로서는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 예상되지만, 희망을 품게 만드는 요소는 적지 않다.

벤투호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토트넘)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달 초 입은 불의의 안와 골절상으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지만, 대표팀 코치진과 의무팀의 도움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21일 대표팀 훈련에서는 스스로 헤더를 시도해 팬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 누구보다 벤투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하는 미드필더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의 존재는 1차전 승점 획득을 향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손흥민 외에도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EPL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가 많아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벤투호가 정상 전력을 가동하게 된다면 포백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한 4-2-3-1 내지는 4-4-1-1 전술로 우루과이를 상대할 전망이다.

김승규(알사바)가 골문을 지키고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권(울산), 김민재, 윤종규(서울)가 수비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는 정우영(알사드)과 황인범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공격 2선에는 황희찬,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재성(마인츠)이, 최전방에는 손흥민이 출격할 전망이다.

만약 우루과이가 투톱 전술을 가동할 것으로 벤투 감독이 판단한다면, 아껴왔던 스리백 수비라인을 가동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 축구 '쓴 맛'

카타르 이어 이란도 패배

녹록지 않는 월드컵 무대

세계 축구 최강국을 가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은 역시 아시아 국가에는 녹록지 않은 무대다.

21일(한국시간) 막을 올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례로 쓴맛을 봤다.

개최국 카타르는 21일 A조 조별리그 1차전이 자 개막전에서 에콰도르에 0-2로 졌다.

카타르의 패배로 92년간 이어져 온 월드컵 개최국 개막전 무패 전통도 깨졌다.

카타르는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우승팀이자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 개막전에 임했지만, 제대로 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완패했다.

22일에는 B조의 이란이 '축구 중가'를 자부하는 잉글랜드에 2-6으로 참패했다.

이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시아 국가 중 FIFA 랭킹에서 가장 높은 20위인데도 잉글랜드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란은 전반에만 3골을 허용한 바람에 상대를 높여 빠뜨리는 특유의 '높 축구'를 구사해 볼 생각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

월드컵에 출전한 어느 나라나 조별리그 1차전을 가장 중시하고 어려워한다. 그중에서도 세계 축구 최강의 변방인 아시아 대륙 국가는 1차전을 무척 버겁게 느낀다.

역대 월드컵에서 1차전을 승리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꼽을 정도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시아 국가 중 조별리그 1차전에서 최초로 승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은 폴란드를 2-0으로 몰리쳐 4강 신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 0-8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일본은 벨기에에 2-2 무승부, 중국은 코스타리카에 0-2로 졌지만, 우리나라만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2008년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토고를 2-1로 몰리치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1차전에서는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해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달성했다.

세 차례 연속 1차전 승리로 '징크스'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났다. /연합뉴스

## 계속 늘어나는 추가시간

### 침대축구 이제 사라지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일명 '침대 축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 부상, 골 세리머니, 비디오 판독(VAR) 등으로 인해 지체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추가하고 있다.

통계전문사이트 유포타가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알라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잉글랜드와 이란전에선 무려 27분 16초의 추가 시간이 나왔다.

전반전 45분을 마친 뒤 14분 8초가 추가됐고, 후반전 45분이 지난 뒤에는 13분 8초 동안 경기가 이어졌다. 전반전 이후 나온 14분 8초의 추가 시간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래로 월드컵 최대 기록이다.

이날 카타르 알라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미국-웨일스의 경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양 팀은 후반전이 끝난 뒤 10분 34초 동안 경기를 더 치렀다.

세네갈-네덜란드의 A조 경기는 후반전 시계가 멈춘 뒤 10분 3초 동안 추가로 진행됐다.

유포타는 이를 소개한 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래로 가장 많은 추가 시간 1~4위 기록이 하루 만에 나왔다"며 "심판들은 지체된 시간을 정확하게 추가 시간에 넣었다"고 소개했다.

피에르루이그 폴리나(62) FIFA 심판위원장은 이탈리아 풋볼과 인터뷰에서 FIFA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정확하게 경기 시간을 계산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대회에선 더욱 정밀하게 경기 시간을 계산할 것이며 이를 각 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FIFA의 방침에 따라 팬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침대 축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 시간이 늘어나면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체력이 좋은 팀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 미국 유니폼 입고 월드컵 데뷔골

아프리카 사상 최고 공격수 조지 웨아, 발롱도르 받고 대통령까지

아들 티머시 웨아, 미국 대표팀 주축 선수로 출전 아버지 꿈 이뤄

아프리카 축구 사상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는 아버지 조지 웨아도 올리지 못한 월드컵 무대에서 아들이 미국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미국 공격수 티머시 웨아(웨아)는 22일 열린 웨일스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선발 출격해 전반 36분 선제골을 책임졌다.

2000년생으로 만 22세인 웨아는 생애 처음 출전한 월드컵 경기에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활짝 웃었다. 웨아는 물론 그의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골이다. 웨아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출신 최고의 축구 선수로 손꼽히는 라이베리아 대통령 조지 웨아(56)다.

웨아 대통령은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불운의 스타를 꼽을 때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다.

웨아 대통령은 현역 시절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AC밀란(이탈리아) 등 유럽 명문팀에서 13시즌을 뛰며 공식전 478경기 193골을 넣는 특급 스트라이커였다.

축구계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발롱도르를 1995년에 수상했고, 같은 해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됐다.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 아닌 선수가 발롱도르, FIFA 올해의 선수상을 한 해에 받은 것은 웨아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일하다.

하지만 라이베리아가 워낙 작은 나라인 탓에 웨아 대통령은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그의 전성기에 라이베리아가 내전으로 얼룩진 탓도 컸다.

웨아 대통령은 사재를 털어 대표팀 운영비까지 책임지며 선수 겸 감독으로 2002 한일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해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웨아 대통령은 결국 월드컵 출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003년 은퇴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이어갔다.

티머시 웨아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뛰어난 운동 능력을 타고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웨아 대통령이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자메이카 출신의 미국인이어서 티머시 웨아는 미국, 라이베리아, 자메이카, 프랑스 대표팀에서 뛠 수 있었다.

티머시 웨아는 프로 데뷔를 아버지의 '친정팀'인 PSG에서 했고, 지금도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으나 대표팀은 '어머니의 나라'인 미국을 선택



21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미국 대 웨일스 경기에서 미국의 티머시 웨아(22-릴OSC)가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빠른 스피드에 유연한 몸놀림, 슈팅 능력을 갖춘 티머시 웨아는 일찍 미국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처음 오른 월드컵 무대에서 아버지의 한을 풀었다.

티머시 웨아는 이날 크리스천 풀리식이 내준 침

투 패스를 논스톱 오른발 논스톱 땅볼 슈팅으로 마무리해 생애 첫 월드컵 득점을 올렸다. 웨아 대통령은 경기장에서 아들의 득점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카타르 도하에 온 웨아 대통령은 23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월드컵	
23일(수)	*한국시간 기준
모로코 vs  크로아티아	19:00
독일 vs  일본	22:00
24일(목)	
스페인 vs  코스타리카	01:00
벨기에 vs  캐나다	04:00

자료 : FIFA